

“우리절엔 신도가 늘어요”

경제난과 조계종 사태로 사찰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콘스님 초청법회, 주말수련회, 한글학교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은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은 스스로 “우리 절은 작지만 큰 절이다”고 소개한다. 스님은 하루 종무시간 대부분 콘스님들을 만나거나 접회 통화하는 것으로 보낸다. 매일 음력 초닷새에 열리는 ‘콘스님 초청법회’에 법사스님을 섭외하기 위해서다. 94년 처음 시작한 법회에는 서암 석주스님 등 웅만하 콘스님들은 한한번 법문했고 수만명이 천불사를 찾아 법문을 들었다.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93년부터 ‘죽음을 준비하다’라는 독특한 주제로 1박2일 영불선 주말수련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련회는 정토수행법, 선체조, 명상음악, 관정기도 등이 무료로 진행돼 직장 자부신행단체 청년회 등으로부터 ‘수련회=대원사’로 통하고 있다.

특화된 프로그램의 시원은 송광사 4박5일 단기출가. 송광사는 이제 불자들만의 도량이 아니라 정진적 육체적 안운을 원하는 국민들의 안식처로 발돋움 했다. 이처럼 사찰들이 갈수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는 각종 연수 및 수련회, 신촌 봉원

사찰 특화 프로그램 포교활성화 큰 도움

천불사 콘스님 초청법회

송광사 4박5일 단기출가

대원사 영불선 주말수련

심광사 한글학교 운영

사(주지 인공)는 영산재시연, 서울 백련사(주지 월해)는 한문서당,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시민선방,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한글학교, 경주 풀굴사(주지 적운)는 선수도,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는 약수터, 대구 관음사(주지 우학)는 불교대학 등을 실시해 신도와 지역민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사찰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뒤떨어진 포교와 사회사업 등 불교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신심을 증강시키고 지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사찰이나 포교당의 경우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이다. 전법 포교 인재양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 부산포교원 원장 심산스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귀농희망자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있다. 스님들이 출성수행하니 종무원과 신도들도 안 따라갈 수 없다.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밤낮없이 씨름한다 한다는 것이 종무원들의 얘기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nia.com)

우리절 불사 용수사 '보시레저타운'



◇ 지난 92년부터 불사를 시작한 양평 용수사는 현재 대웅전, 설법전, 요사채 등이 들어서고 있다. 원내는 주지 일영스님.

수행·요양 겸한 전천후 도량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경기도 양평에 최적의 시설을 갖춘 종합도량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불자들의 수련과 스님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창건되는 문수산 용수사(주지 일영) 보시레저타운이 바로 그곳.

양평군 서종면 수암리 1만여평 부지에 터를 잡은 용수사 보시레저타운은 대웅전, 설법전, 요사채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웅전(33평)은 막바지 단청불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하1층 지상2층 1백80평규모의 요사채는 2월중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물 5백평 지하층 지상4층 규모의 설법전과 강당을 갖춘 불교회관 공사는 골격을 갖추 3층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불교회관 지하1층에는 스님들만을 위한 장수탑(납골탑)이 세워질 계획이다. 내년 1차공사 완공을 목표로 하는 용수사 보시레저타운은 2천년부터 2·3차공사로 산신각 나한전 극락전 사설양로원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1만여평 부지에 대각불사 대웅전·납골탑 등 공사

만수안이 병충처럼 휘감고 맑은 계곡물이 S자로 굽어치는 곳에 세워지는 보시레저타운. 노비구니스님 일영스님(85)이 “여법한 도량을 만들어 부처님을 모시고 포교를 이루는 수행터전을 만들자는”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전에 마지막으로 회향하겠다는 불사다. 그런만큼 지난 92년부터 가파른 눈발과 산을 깎아내고 토목공사를 하는데만 3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일영스님은 영자산 천진암터에 영통사를 짓고 천진암을 복원하려던 변기영신부가 천진암을 천주교성지로 만들면서 여러 방패로 나온 스님. 스님은 “8·15해방 때 금강산 수미암에서 내려왔다는 이유로 ‘발갱이’로 몰아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은 것이 천주교와 군 그리고 관공서에 서운했다”며 “이제는 모든 과거일을 훌훌 벗어 버리고 후세불자들을 위해 새로운 터전에 대각불사를 하고 편안히 열반에 들겠다”고 밝혔다. (0338)71-0134 김원우 기자(wwkim@buddhania.com)

회암사지·철장사 관광지로 개발

KBS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의 무대였던 양주 회암사지, 의적 임궽정의 활동무대였던 안성 철장사 일원 등이 관광지로 개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호소이나 역사적 인물의 활동무대와 TV드라마 촬영장소 등을 관광코스화 할 계획이라고 1월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6월까지 관광지 개발이 가능한 곳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지답사,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해 2~3곳의 관광지개발 후보지를 우선 선정한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이 끝나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다. 후추역에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내에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안성 철장사, 양주 회암사지, 양주 감악산 일대,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배경인 안산시 본오동 일원 등 6곳이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nia.com)

경남 양산 천불사서 통일신라 금동불 출토

경남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천불사(주지 도봉) 대웅전 정원에서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불상과 단지 등 유물 6점이 출토됐다.

높이 20cm 크기의 금동여래입상 1점과 불두 2점은 1월 8일경 대웅전 좌측 측대 침하방지를 위해 주변정원 성토작업을 하던 중 2m지하에 있던 단지와 함께 발견됐다.

천불사 출토 유물에 대해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9세기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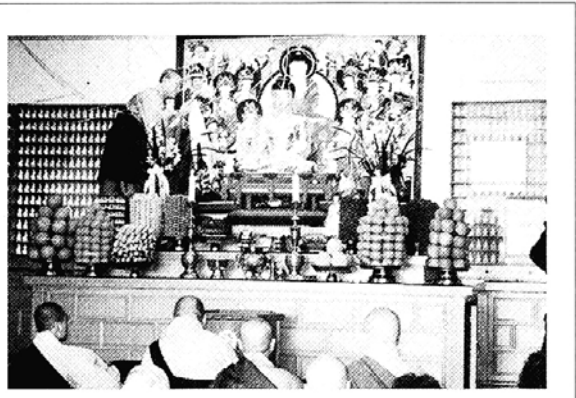
부산 부처님오신날 중단화합 역점

결식아동·복 동포돕기·헌혈 등 행사 계획

부산지역 부처님오신날(5월22일) 봉축행사가 경제난과 조계종 사태를 극복하는 의미로 열린다.

부산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1월 21일 사무실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연구기획위원회(위원장 삼산스님) 회의를 갖고 전시회, 화합의 장, 복지, 청소년행사 등 5개 부문의 봉축행사를 확정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결식아동과 불우이웃 복원포부를 위한 10만짜리 동전과 자비의 쌀 모으기, 영세민을 위한 영정사신 찍어주기, 헌혈 등 복지, 이밖에 외국인 연등 만들기 대회, 우리차 마시기 시합회, 환경경반대회, 축구대회, 연합

합창제, 가두한물가공연, 시낭송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번 봉축행사는 부처님오신날 보름전부터 시내 각 사찰과 부산역광장 시민회관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며 부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부산불교신도와 불교자원봉사회 불국토 한마음선원 등 부산의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여한다. 부산시불교연합회 재무부 사무차장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건네고 조계종 사태로 어지러워진 불교계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nia.com)



승가원 법당 점안식 승가원 황성 종합복지타운 법당 점안식이 1월 28일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소책사님을 원장 보각스님, 아나올의 집 경운스님, 강북구청을 지명스님을 비롯 후원회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점안식에 이어 복지타운불사 원민회향 기원 천원기도 입제식이 있었다.

불갑사 김해 포교당 개원

경남 포교거점 '모란선원'...진신사리탑 세우

불갑사(조실 수산)는 1월 23일 경남 김해에 경남포교당 모란선원(주지 영일)을 개원했다. 김해시 생림면 모란유치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모란선원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탑과 5백평을 수용할 수 있는 대웅전을 갖추고 있다. 모란선원은 5년전부터 김해지역 포교를 위해 운영해오던 공간을 공식적인 포교당으로 등록한 것으로 앞으로 김해지역은 물론 경남 일원의 포교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일스님은 “지역민들의 생활향상을 돕고 올바른 정진을 위한 수행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자비사 부산소년원 위문 무기수 김희로 성품 전달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는 1월 부산소년원을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재일교포 무기수 김희로씨가 고국의 소년원생들에게 보내온 5만엔의 회향을 위해 마련된 자리

그늘진 이웃에 따뜻한 자비행

제천불교어머니회

소년가장·독거노인 등에 장학금·쌀·의료비 전달

12일 관내 환경 미화요원 91명 전원에게 겨울 목도리(30만원 상당)를 전달한다.

봉사회는 95년이후 34회에 걸쳐 1백73개 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 8백72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특히 봉사회원들은 재천고 김모군에게 매 분기별로 20만원씩 3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혈병을 앓고 있는 덕산면 삼암리 이모양(14)과 봉양을 미당리 서모군(15)에게 각각 1백만원의 의료비를 전달했다. 이밖에 매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세대대를 비롯해 영아원과 원주 소책사마을을 찾아 국수, 쌀, 연탄, 위문품을 전달하고 목욕, 세탁, 청소 등 노력봉사도 하고 있다.

제천 불교어머니 봉사회의 이러한 활동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수, 미역, 멸치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어려운 이웃들의 용기가 되고 있다. 김종근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영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비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흥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라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개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판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 보더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해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편안,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氣)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밤마다 잠이들었던 동물을 모두 건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기념품·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